

## 격려사

오늘 세계평화의 중심 동명부대를 방문한 대중 일동은 반갑게 맞아주신 함남규 부대장님과 부대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헌신의 반석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고맙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럽게도 2007년 6월 동명부대의 레바논 파병은 우리나라가 진실로 세계에 자비와 평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명입니다. 국가의 힘이 바로 세워지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바로 세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계신 동명부대의 파병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진행형 역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더욱이 올해는 광복 70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입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우리의 심정만큼 평화와 화해, 그리고 공존과 상생의 절실함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평화와 공존을 지켜내야 할 스스로의 힘이 필요함은 두말한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사용함에 있어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마음 깊이까지 새겨진 평화, 공존, 화해의 필요성을 중동의 화약고인 레바논에서 총이 아닌 대화와 마음으로 꽃피우고,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동명부대의 헌신은 인류 사회에 모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 받은 동명부대의 활동을 마음속에 담아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노력도 언제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함을 축원하며, 반갑게 맞아주신 부대원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 법회 격려사

호국 동명사의 용감한 불자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평화의 최전선에서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인연이 참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레바논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종교적 화합의 모습은 중동의 여느 나라와 참 다른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IS를 비롯한 극단적 종교 정치적 성향을 지닌 단체에 의해 세계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대화와 화합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 자랑스러운 동명부대가 있음을 그리고 그 핵심에 불자 여러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자 장병 여러분, 불교의 자비의 정신으로 남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가 바로 이 곳 중동에 또 다른 평화의 꽃씨를 남기는 일임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승범망경」의 말씀중에 "어머니가 하나 뿐인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 일체의 생물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못 다른 생명을 대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타지에 나와 인연이 다르다고 여겼던 레바논의 이웃을 소중한 인연으로서 마음까지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여한 마음이 여러분께 평화와 실질적인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 시간이 한국불교가 1700여 동안 자리하게 된 그 근본적인 힘을 전

달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회향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스님과 불자의 관계로 다시 뵙기를 부처님  
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